

룩피로 시작해서 룩피로 끝난

락아의 10월 이야기



순서

1장. 우리의 활동은 루피 전과 후로 나뉜다.

* 루피 전

* 루피 후

2장. 락아 (樂兒), 너에게 묻는다.

3장. 락아 (樂兒)네 사진전

4장. 너에게 난, 나에게 넌

5장. 우리의 목소리, 개인 에세이.

특별 부록. 락아(樂兒)의 재능을 소개 합니다.

제 1장.

10월 우리의 활동은 루피 전과 후로 나뉜다

활동보고



루피전 하나. Tagalog 공부



타갈로그어를 더 익히기 위해 루피 일정이 연기된 만큼 10월 초반은 언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YMCA 스텝이자 우리의 Tagalog 선생님인 Mika와 봉사자 친구들은 우리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늘 다정하게 알려주었다.



특히, Mika는 여러 노래와 게임 등을 준비해서 우리가 Tagalog 를 공부하는데 흥미를 좀 더 붙일 수 있도록 애써 주었다.

루피전 돌. Feeding Program



Bono와 Pepper가 매주 일요일 마다 가는 교회에서 **Feeding Program**의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Lupi 일정이 미뤄진 탓에 조금은 루즈해진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대가 생긴 날이었다.



10월 10일부터 11일 까지 이틀 동안 오전 시간에 두 곳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는 **봉사자로 참여** 하였는데,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루피전 셋. 실전 Tagalog 훈련 in Coffee table



10월 첫 일요일 저녁 우리는 Dr. Steve 의 식당인 Coffee table 에 초대 되었다.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Lupi 를 위해 Tagalog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흔쾌히 자신의 카페에서 실전 연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다.



2시간 정도 카페에서 주문과 서빙, 직접 음료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Tagalog로 해서 **특히 주방과 관련된 단어를** 익히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현지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다.

Welcome to Lupi!

Main Road



BARANGAY
HALL

Day
Care
Center



보노 & 미카네

MG

Dindin



Tatay Roger

Nanay Marlyn

수 & 페퍼네

Nanay Geraldine

Diovana



Jade

Lyza

Himyel

준준이네

Reyniel



Kuya Ronald

Ate Susan

지미네

Nanay Oning



Ate Risa

Kuya Black

Daycare Center In Lupi!



Lupi의 Daycare Center 는 초등학교를 가기 전 연령의 아이들이 주 대상이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져 총 8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날의 당번 이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신다.

루피에서 하나. 수업 참관



수업 참관은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10월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등 수업의 세부내용을 좀 더 파악하였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실제로 활동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었다.

루피에서 돌. 아이들과 놀기



Daycare Center 의 수업은 선생님이 그 날의 배울 내용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온 노트에 그것을 따라 적으면 거의 끝이 난다. 아이들은 굉장히 많지만, 교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제가 일찍 끝난 아이들은 저마다 밖으로 나가 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때까지 함께 놀았다! Lupi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할 만큼 처음에는 낯설게 우리를 보던 아이들도 10월이 마무리 될수록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사이가 되었다.

루피에서 셋. 아이들과의 활동 준비하기



사실 아이들과의 활동은 초기에 세운 계획이기 보다는 우리의 바람이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금요일에는 Feeding 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준비해보기로 하였다.

루피에서 넷.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기



아이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금요일에는 Mika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러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루피에서 넷.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기



우리가 처음으로 계획 한 것은 시흥에서 지역 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생태놀이' 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알파벳을 이용한 "물의 세계여행" 이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노래와 율동을 하기도 했고, 동대문 노래를 Tagalog로 번역해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계획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힘으로 접을 수 있으면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새를 접기로 하였다, 다 완성된 새를 창문에 매다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루피에서 다섯. Daycare Center 주변 청소하기



Lupi 에 살면서 우리가 느낀 것들 중 하나는 마을 길 거리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이었다. Daycare Center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특히 뒷마당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었다. 부모님과 2-3일 동안 함께 청소를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존 계획과는 달리 Center 선생님과 소통의 부족으로 우리 팀원끼리 청소를 하게 되었다. 막상 청소를 하려고 했을 때 함께 놀았던 아이들도 같이 하게 되어, 23-24일 이틀 동안 다 함께 청소를 하면서 잠깐이지만 아이들도, 우리 팀원도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루피에서 여섯. Daycare Center 부엌 공사하기



Daycare Center 의 부엌 공사는 우리가 Lupi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부분이었다. 첫 방문 이후 부엌이 개선 될 필요를 3주체가 모두 느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초반에 가졌다.



협의 끝에 우리는 주방을 허물고 기존의 낮고, 위험한 **지붕을 좀 더 높게**, 배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태풍이 오면 물이 잠기는 **바닥의 배수처리**를, 원활한 설거지를 위한 **싱크대 설치**를 계획하였다. 또한 실제 **필요한 자재**를 Lupi Barangay officials 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루피에서 여섯. Daycare Center 부엌 공사하기



또한 부엌 공사를 준비하던 찰나에 San Fernando 측으로 부터 전문적인 설계 지원과 약간의 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San Fernando 측과 Lupi, Camsur YMCA 까지 총 4개의 주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종 도안을 완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설계를 맡아준 San Fernando 측 엔지니어와 우리, Lupi Barangay가 최종 합의를 하는 시간을 거쳤다. San Fernando 내에서의 소통의 부재와 우리와 Camsur YMCA 역시 소통의 부족이 있어서 차후로 또 다시 합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루피에서 여섯. Daycare Center 부엌 공사하기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10월의 마지막 날 공사의 첫 부분인 기존 부엌 철거가 시작 되었다. 철거를 맡아 주신 Barangay 관계자분들은 건축의 숙련공 이셨다! 약 1시간 만에 기존 부엌이 모두 철거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이용될 화덕을 만들어 주셨는데, 별도의 디자인이나 도안 없이 몇 마디 나누시더니 임시 화덕을 짓고 계셨다. 이로써 부엌 공사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오는 11월에는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 될 것이다.

루피에서 일곱. 빈곤 퇴치 캠페인 & 지역 프로젝트 회의하기



Lupi의 일정을 앞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계획을 이어왔다. Daycare Center의 주방 건축 뿐만 아니라 Lupi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빈곤 퇴치 캠페인과 지역 프로젝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되기 보다 겹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생각했던 캠페인의 범위, 우리의 한계(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것), 선호하는 활동 등 서로가 비슷한 것을 생각한 것 보다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회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과 다음 Barangay 지역인 Dolo 에서 이어질 것이다.

제 2장.

라카, 너에게 묻는다

피드백



1. 라온아띠를 통해 얻고자 한 것들을 잘 해 나가고 있나요?

여정

벌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 이 모두를 천천히 품 속에 넣고 있는 중이야. 다만 품에 온전히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가고 있어. 지금 찾은 건 일기쓰기나 스티커 페이팅북 이 정도?

남정

조금씩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답할 것 같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고, 부여하며 잘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정

라온아띠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제 나만의 방식으로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얻고자 했으며,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 결국엔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은

저는 기존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 라온아띠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지역 훈련을 포함해서 3달 동안 라온아띠로 살면서 사실 다르게 사는 “방식” 보다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서 처음 얻고자 했던 것을 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성아

라온아띠를 하고자 했을 때 스스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었지만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를 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지는 않았다. 국내훈련을 하고 우리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5개월의 시간을 걱정 없이 흘러 가는데로 살아보자는 목표 아닌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직 이 목표대로 살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왜 힘든지 답을 찾기 어려워 혼자 속을 앓는 시간도 종종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내가 바랬던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러기 위해 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2.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잘 맞춰 나가고 있나요?

주은

사실, 저는 시흥에서 가장 많이 느낀게 '우리가 진짜 많이 다르다' 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다름을 맞추어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다름을, 다른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서 서로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의 다름이 너무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

남정

누군가에게는 빨라서 지칠 때도, 누군가에게는 느려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 같다. 정해진 속도란 없기에 서로 끌어주고 당기며 적당한 균형을 잘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성아

처음으로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속도의 다름을 느낀 것이 지역 Y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였다. 다툼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잖이 놀랐고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다. 그 이후 우리는, 그리고 나는 감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질수록 내가 느끼기에 우리는 속도의 다름을 조절하여 중간을 만들어 나가기보다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맞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속에서 내가 이기적인건가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며 발란스를 잘 맞춰 나가기 위해 서로 배려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여정

내 대답은 YES! 난 우리 팀이 서로 믿어주고 당겨주고 영차영차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문득 '나눔'의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드네. 속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깐.

2.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잘 맞춰 나가고 있나요?

회정

우리 모두 시흥에서의 경험과 9월과 10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서로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간의 배려를 통해서 맞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푸시업해주면서 뒤쳐진다 싶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 이를 잘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락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성아

한국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들을 떠올리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여 좋은 결과와 성과를 내고 남들에게 인정 받았던 활동들이 떠오른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느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결과에 따라 과정의 기억을 달리했다. 그래서 라온아띠로 지내온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남이 아닌 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면서’ 라는 짧은 문장만이 머리 속에 떠오른다. 정말 궁금해 진다.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란 무엇일까?

여정

의미를 담는 범위가 방대해서 어떤 일이 의미 있는 활동인지 정의할 수 없지만 "많은 일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되는 활동" 이라는 지미가 가져온 책의 문구가 떠오르네요

3. 락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주은

제가 라온아띠로 살면서 발견했던 제 모습 중에서 신기했던 게, 제가 “의미있다”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건데요. 제가 의미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빈곤토치 캠페인과 지역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문득 우리가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고요. 또 루피 사람들을 만나며 진짜 타갈로그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의 공부 방식을 생각했던 때이기도 했는데요. 쓰다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잣든 그랬다구요(급마무리). 호호

회정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의 저라면, 조금 더 저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합의를 통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남정

우리가 함께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활동일 때.

4.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회정 - 먼저, 술을 안 마시고도 잘 산다는 것.(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은근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잘 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저의 단순한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 등등 이 외에도 많은 모습을 발견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정 - 아이들과 노래 부르기 쉽지 않구나. 그리고 휴대폰 없이 살만 하구나.

여정 - 느슨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노래 듣는 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좋아하고, 일요일의 영상 설교가 기다려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 행복은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고, 순간의 감정들에 다스려지지 않는 법을 차근차근 익혀가고 있어.

성아 - 언젠가 주은언니가 너는 참 무던한 것 같아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 때 응? 나안 그런데 라고 대답했다. 내가 나를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들과 현재의 내 모습들을 떠올려 보니 생각보다 나의 W곡선의 굴곡이 완만하구나.. 내가 내 생각보다 무던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나는 생각보다 동물들을 많이 좋아한다. 어릴 적부터 외동인 것이 싫어 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알려지가 심해 키우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동물들을 보고 정을 떼지 못하는 나를 보며 내가 이렇게 동물을 좋아했나 싶고 이런 내가 신기하다.

주은 - 어.. 음.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구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다가 가끔 그 그리움이 너무 커서 힘들어질때도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안좋은 거긴 한데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도전하는 마음보다는 뒤로 확 물러서는 사람인 것 같네요. ㅎㅎ.

5. 락아끼리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남정

함께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주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같이 만들고 먹을 때. 그 때 진짜 가족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음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 음식을 우리가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해요><

성아

누군가는 데이케어센터에 아이들과 놀고 있고 누군가는 바랑가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누군가는 엄마들의 음식 준비를 도우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여정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중까지 했는데 저녁 8시도 넘지 않았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지금 생각해도 참 평온하고 좋네.

회정

많은 일을 하다가 기분전환을 하러 어디론가 놀러 갈 때! 이 순간에 오는 해방감과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제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프로젝터로 틀어 놓고 다 같이 웅기종기 모여서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 3장.

락아네 사진전

락아의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성아's Pick



하나,
매일 우리 다치진 않을까 뒤돌아 보며 걸던 미카가 누구보다 빠르게 걸어 옴 하던 찰나, 오늘 유독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해가 지기 전에 이곳에 도착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머리가 땀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려는 모습에...
할아버지를 잊고 살았다는 내 말에 항상 마음속에 있지 않냐고 대답해준 미카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제사 못 지내고 왔는데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줘서 너무 고마워 미카야.



둘,
루피로 홈스테이를 가기 전 배운 따갈로그어를 사용해 보고자 커피테이블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다. 다정다감한 LA덕에 생애 처음으로 커피도 만들어 보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실 LA의 스윗함에 반했다...ㅎ 그래서 커피테이블 일일 알바가 좋았나 보다... (주은 언니도 적극 공감할 듯.....ㅎㅎㅎ)

성아's Pick



셋,
새벽에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지만 시장에 가는 날엔 번뜩 일어나려고 노력하게 된다. 상쾌한 공기에 한적한 도로를 우리끼리 달릴 때면, 보이는 풍경이 괜히 더 예쁘게 보인다. 좋은 기계와 깨끗한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지만 필리핀에 삶과 일상에 녹아 드는 옛스러운 그 느낌이 참 좋다.



넷,
우리 집 셋째 도바나. 도바나의 눈을 보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콕콕 애린다. 또 한편으론 모든 걱정과 슬픔이 녹아 내린다. 아떼~ 하고 달려와 안길 때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월요일에 보자 아떼가 빵 사들고 갈게. 히히

남정's Pick



자세히 보면 양파를 썰기 위해 수경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수 : 지프니야아아아아아아~~~ 제발 와라아~~~~



수의 설정 샷 열정과 그걸 따라하는 조던을 보고 웃음이 터져버린 지미와 보노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수&페퍼&보노.

회정's Pick

"Kuya Jun Jun, I miss you."



준준이네로 다 모이라우~~



내 최애 아기 'Hwaki'



격렬한 몸싸움 ㅋㅋㅋ

주은's Pick



안녕하세요 저는 애벌레 김미카 입니다.



Ipis(바퀴벌레) 찾아 찾아!!!! 지금 못 찾으면
오늘 밤 전쟁이다아아아



너가 나에게 달려온다.
그럼 나는 꼭 안아줘야지



엄마엄마~~ 여기여기

여정's Pick



그냥 잘 나온 사진



고사리들 이름싸인회



페퍼 머리 페퍼가 한 거 아님 라이자가 해준 거임



꽃브즈 은 읊은 스톨름 느으
(꽃바지 안 입은 사람 나와)

제 42장.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락아가 락아에게 보내는 메시지.



회정

누나,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에 참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흥에서부터 파실리카 성당을 산책할 때나 그 외의 순간에도 말이에요. 다만, 종종 누나가 '뭣'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에겐 이 단어가 무겁게 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ㅋㅋㅋ 우리 잘 살아봐영~~

여정

나랑 같이 '이제 뭐 먹지?'를 고민해줘서 고마워 언니. 또 나를 보고 웃을 때 커지는 콧구멍과 미간의 주름이 나에게 언니를 더 웃게 해주고 싶은 동기부여가 돼. 너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부끄러워서 대답은 잘 못했지만 나도 언니가 있어 참 감사해 :)

성아

우리 한 명 한 명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우리 만언니가 너무 좋다. 가끔은 언니랑 너무 시간을 못 보내는 것 같아 아쉬운데 조금 해 하지 않으려고 해. 카시가 아파서 숨을 헐떡일 때 누구보다 먼저 Y로 뛰어가려던 진심의 언니를 보며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루피 농구장에서 나눔 하던 날 노력하는 만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좋다고 말했던 언니였는데 그 말이 많이 공감아 갔는지 잘 잊혀지지가 않네. 명언제조기 에피소드 제조기 이 주은!ㅋㅋㅋㅋㅋ 이제 코 안 골아서 서운해... 알라부♡

남정

무궁무진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주은이. 샴푸 대신 린스를, 보드마카 대신 유성매직을 사고, 새벽 3시에 바깥 화장실을 갔다가 문이 잠겨버려서 함께 지내는 미카를 애타게 부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재미있어서 시간 흘러가는 줄 모른다. 대화 주제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간다. P.S 내가 마술 서툴게 해도 모른 척 리액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동.ㅋㅋㅋ

성아

너에게 조금은 까칠한 누나인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예전보다 눈빛이나 말투 섬세한 것을 신경 쓰는 너를 보면 너가 성숙해져가고 있구나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거 아닌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 잘 절제하고 조절해 나가줘서 고마워. 사람 좋아하는데 무뚝뚝하게 표현하는 거 멀리서 보고 있으면 괜히 뭐랄까 내가 부끄러워진다 ㅎ 아, 시장에 야채 할아버지 걱정되다던 날 막상 갔는데 물건 별로라고 옆집에서 당근인가 감자 한 보따리 샀던 너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 ㅋㅋㅋㅋㅋ
냉정 김강우

주은

준준이야 나 한테 아직도 화났어? ㅠㅠ 미안해 ㅠㅠ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게 아니라 왜 자꾸 너 옆에 있으면 뭔가를 뱉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 턱에 구멍이 뚫렸나봐 조만간 메꾸도록 해 볼게..

여정

준준아 기억나니? 데이케어 센터에서 나랑 너랑 맘조 세 명만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났던 소리. 이게 뭘 소리가 움찔하던 너가 기억난다. 그거 의자 끄는 소리 아니야. 빵구 소리야. 말로 하긴 부끄러워 여기에다 말할...오잉?

남정

규홍 간사님께 들은 '반드시 적응하라'는 말을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말하면서 적응해나가고 있는 준준. 항상 나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해줘서 나는 오히려 고맙고 때로는 이상한 별명들을 붙이고 간사님이라는 말까지 하지만 사실은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눌 때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동생.

회정

남정이 형은 저에게 최고의 형이자 친구랍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형에게 하는데 항상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해여. 허허. 종종 저는 형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유승민 의원님이자 樂아팀 간사님이자 필리핀 연예인 남정이 형,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은

남정이혀어엉 기타 실력 아주 칭찬해~~ 노래 부르는 거 조금 부끄러워하는데요. 덕분에 자신감이 조금 붙었구요. 아 그리고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던데요. 그 친구들을 나눠 줄 날을 조금 기대해 볼게요. 호호호

여정

지미 예전엔 오빠 개그 듣고 억미(억지 미소)라도 지었는데, 요즘은 못 들은 척할 때가 종종 있어 미안해. 혹시 티 나? 이걸 보면 티가 나겠지? 앞으로 억미라도 지을게. 오빠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Kaya mo!

성아

해야 하는 말 다 해야 하는 기 썬 동생이 하는 말 꾸야에게 좋게 통역해주는 오빠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 욕하는 성격에 좁은 것만 보고 있을 때 모든 상황을 헤아려 말해주는 오빠 덕분에 정신차리고 넓은 시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아 ㅎㅎ 아직도 방구 왜 달고 들어왔냐는 그 말이 너무 웃겨 ㅋㅋ 내 개그에 상처 받으면 안돼... 알겠지....? 앞으로도 열심히 놀릴게....

희정

여정 누나, 장난 너무 많이 쳐서 미안해여.. 진심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조절 중이에요. 그래도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건 누나가 편해서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나랑 이야기 할 때면, 편안한 감정이 느껴져요.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잘 지탱해줄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교 하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성아

츨의 어머니가 Y하우스에 오셨을 때 눈을 맞추며 예의를 갖추던 너의 모습과 바랑가이 캡틴이 조금 뒤로 물러 났던 순간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대화를 하던 너의 모습들, 소소한 순간이지만 잔잔하게 기억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 너의 모습들이 많다! 관계를 맺음에 있어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너가 참 이쁘고 고마워♡

남정

즐길 땐 누구보다 신나게, 열정적으로 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김페퍼.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이 라온아띠 메인 사진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예쁘다. 가끔 정말 조용해질 때가 있는데 조용한 성격 때문인 건지, 아니면 힘든 건지,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될 때도 있다. 페퍼는 항상 배고프다고 농담했었는데 사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같이 뭐 먹으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 소리 뽐 하하...

주은

페퍼야아 김페퍼~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지. 늘 아침 메이트로 같이 프렌치 토스트 먹어서 너무 좋다. 질릴 만도 한데 맨날 맨날 맛있게 먹어서 참 좋아. 아, 매일의 프렌치 토스트는 새롭지? 나도 그래 ><

회정

오랜만에 '성아 누나'라고 불러보는 것 같구먼요. 항상 'Ate Sue'라고 불러서 그런지... 여튼, 저는 요즘 누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방구 냄새가 엄청나다스 것(?) 이 이야기해도 되나?? ㅋㅋㅋ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답니다! 참 누난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 변치 말구 오래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여정

친구야 루피에서 8시 반에 잘 준비를 마치고 어둠 속에 너와 나누는 수다시간이 참 행복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르륵 잠에 드는 너... 우리 대화는 종종 갑자기 종료되었던 것 같다. 뭔가를 덜 닦은 느낌이지만 너의 수면욕을 응원해. 사롱한다 킁

주은

아떼 슈스. 수야아 가끔 너의 큰 리액션에 놀랄 때도 있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하면 짱 웃겨. 너는 스스로를 selfish girl 이라고 하지만 내가 느낀 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관계에 있어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말이야 히히 난 그런 너가 죠타구우 >< 아 그리구 진짜 진심으로 너의 방... 방ㄱ... 아니. 아니야. 나는 늘 너의 쾌변을 응원해 ><

남정

참았던 방구를 차 밖에서 해결하고 당당하게 다시 탔지만 냄새도 함께 달고 왔던 문수.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난다. 농담~. 알고 보면 누구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있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웃음 짓게 된다. 아, 우리 언젠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날이 오겠지?

제 52장.

우리의 목소리.

개인 에세이



Pepper's Essay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이자 문장이다.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한다. 먹는 거야 두 말 할 것도 없고, 기도는 짧게라도 배먹지 않으려 하지만 매번 마지막에서 멈춰야 하게 된다. 마음껏 사랑하라니. 이젠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9월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깊어 졌다면, 10월은 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에 대한 고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마냥 사랑만 하고 싶는데, 내 솔직한 감정들을 애써 모른 척 하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었다. '받는 만큼만 주고, 주는 만큼만 받자' 라는 무서운 생각을 한 적도 있다.

2피 홈스테이를 시작하고 한 예쁜 가족을 만났다.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당연히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모습들에 혼자 행복했다가, 슬펐다가를 반복했다. 매일 다른

감정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나를 마주했을 때,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답다는 마음을 가졌던 하루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짝 찬 마음을 갖고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는 마음을 가졌던 하루의 끝엔 허탈함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고민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루피 생활을 그저 '무사히만' 끝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면, '홈스테이'와 '데이케어센터'라는 프로젝트 못지않게 관계 맺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감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름다운 점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내가 봐도 내가 별로인 날엔 자책은 하지 말자. 살이 쪼서 바지가 맞지 않으면 사이즈가 더 큰 바지를 사면 된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커진 마음을 기대하면 된다. 문제는 이 깨달음이 항상 뒤늦게 날 두드린다는 것. 나, 잘 할 수 있을까?

Jimmy's Essay

또 한 달이 지나간다. 감사하게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 루피라는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함께 지내게 된 1살 된 트레이샤미라는 아이가 있다. 처음에는 나와 눈만 마주쳐도 울던 아이가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다시 도망가고, 내가 누워 있을 때 몰래 다가와 찔러보고 만져보고 다시 도망가고,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 이름을 불러주며 조심스럽게 나와 손을 잡는 사이가 되었다.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쌀 포대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아침에만 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새벽 내내 울라는 걸 깨달은 닭들의 소리와 이웃 분들의 자신감 넘치는 노래 소리와 함께 사는 할머니가 차례주시는 아침상이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활동하는 데이케어센터로 가는 길에 아는 얼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인사를 할 때 이제는 서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데이케어센터에서의 아이들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내게 힘을 주는 존

재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함께 공유하는 팀원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야외 농구장에서 야자수와 노을을 바라보며 하는 나눔은 아름답다.

처음 루피라는 마을에 대해서 들을 때는 우리가 활동하게 될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주로 들었기에 데이케어센터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했었다. 하지만 루피에서의 생활이 3주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나에게 데이케어센터에서의 활동은 그저 생활의 일부분일 뿐, 마을에서의 삶과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해지는 것 같다. 데이케어센터라는 특정 장소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루피라는 마을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활동들이 시작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 아니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토의한 생각들을 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도

Jimmy's Essay

못한 의견들을 듣기도 하고 더 좋은 방안들이 생기기도 하며, 아주 자주 우리의 계획들이 변경될 때도 있다. 5명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많은 시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들이 흘러갈 때는 조금 지칠 때도 있다.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즐겁다. 라온아띠에서의 활동만큼은 혼자서 빨리 달리기보다는 다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국내 훈련 체육대회 때 이인삼각 했던 게 문득 생각난다. 헤헤 그때 참 재밌었는데. 내일도 파이팅.

JunJun's Essay

9월은 적응하는 달이었다면, 10월은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달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달은 3편의 시가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들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먼저,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다. 이 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하늘에서 짹짹 흘날리는/ 지느러미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함박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함박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글을 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살아갈 힘을 얻었고, 지금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도 똑같이 힘을 얻고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융화되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진다면, 나는 이번 라온아띠로서 역할을 잘 하고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시는 정현중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이 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번 한 달은 나는 많은 곳의 방문객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곳의 방문객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에게도 방문객이다. 이 시를 접하고 난 이후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JunJun's Essay

또한, 이번 달에 생전 처음으로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가고, 그들은 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눈으로 보여지는 만남의 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일생의 순간을 공유했기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한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홈스테이' 뿐만 아니라 '피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만났던 학교 학생들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Lupi' 마을 주민 분들에게도, 우리 팀원들에게도,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마지막 시는 킴벌리 커버거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다. 이 시는 아침이나 저녁마다 한 번씩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방

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게 해준 시이기 때문이다. 이 시의 전문은 이러하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 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도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눴으리라./

JunJun's Essay

이- ,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눴으리라./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
입맛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이 시를 꼭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다. 언제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후에 생각을 하면, 후회가 되는 순간이 많다. 라온아띠를 통해서 '후회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시를 10월의 어느 날 읽었는데, 읽고 난 이후, 나 자신을 사랑해보자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해보았던 것 같다. 다만,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 방법을 찾아보고 배우고자 노력을 하고자 한다.

Sule's Essay

9월 에세이는 가짜다. 나는 여전히 일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고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며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게 두는 것이 어렵다. 무엇을 했으며 배웠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그냥 나열하기로 했다. 10월도 안녕.

감사한 것

최 진희 여사님의 딸로 태어난 것, 엄마가 해주는 요리, 밥과 국과 반찬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바다를 보며 바다와 함께 자란 것, 학교와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것, 예쁜 교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 교복이 작으면 큰 것을 살 수 있었던 것,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낸 친구가 여럿 있는 것, 학창 시절 내내 친구와 트러블이 없었던 것, 건강한 신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물과

전기 걱정 없이 사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맨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길을 걷는 것,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던 어린 시절, 한국에서 태어난 것, 대학을 다니는 것, 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한 것, 대학에서 만난 소중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준 가르침,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또 그것을 꿈꿔볼 수 있는 것, 내가 만나고 붙잡은 모든 기회들, 라온아띠에 합격해 우리 팀을 만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나

그리운 것

한 신평차 국물 닭발, 햄 우동사리 주먹밥 추가 얹기떡볶이, 어좁이 우리 엄마 품, 야구장의 응원열기 그리고 치맥, 오빠들과의 수다 그리고 잔소리 특히 잔소리는 해영쓰, 캐시들의 웃음소리, 강남역의 복잡함, 겨울 옷, 스마트폰 속 과거사진들, 강의실, 기숙사에서 늘 하던 현영이와의 수다, 학교 앞 감튀집 그리고 리딩소스, 변비 없던 건강한 장, 10년지기들과의 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 풍신한 이불, 때 없는 발톱,

Sule's Essay

화장하고 한껏 꾸민 하루하루, 하이웨이스트 바지, 불룩하지 않은 날씬한 배, 한국 영화 노래 드라마, 친구들과 목적 없는 전화통화, 뽀송한 뽕있던 앞머리

그리울 것

이케아 센터의 아이들 특히 라파엘과 와키, 룬베리아, 찹수이, 미카, 허리 숙여 타는 jeep, 도바나, 제이드, 꾸아쥔, 소소한 칭찬, 발룬티어 친구들, 인피니티 쿠키엔 크림, 졸리비 팬케이크 샌드위치, 샤왈마, 풍성한 구름이 있는 푸른 하늘, 언제 어리서나 반겨주는 인사, 커피테이블 망고쥬이크, 내 사랑 망원, 판식 매운 맛, 김정현, 이주는, 박정현, 양희정

당연한 것이 아닌 것

화장하기, 3가지 이상의 반찬, 머리 드라이기로 말리기, 어느 화장실이나 있는 휴지, 세탁기 사용, 식 후 후식, 나와 같은 생각과 의견, 벌레를 무서워하는 것, 침대에서 자기, 밤늦게 자기, 정확한 일기예보, 정수기 물, 커버가 있는 변기, 따뜻한 물, sns하기

Bono's Essay

10월 에세이는 정말 쓰기가 어려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쓰고 싶지가 않아서 자꾸 피하게 되었다. 분명 10월 동안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도 너무 많았는데 말이다. 2018년 10월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에 살아본 달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가족도 만났고, 그 가족들과 다른 언어로 대화하면서 순수한 웃음을 나누었다. 참 저릿하게 행복한 웃음,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또 타갈로그어로 아이들과의 활동을 진행해보기도 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엌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기도 했다. 아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엌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다친 손가락들 덕분에 주변에 나를 돕는, 살뜰히 생각해주는 감사한 손길들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하기도 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픈기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 당연할 만큼 잘 하고 싶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나에게 익숙했던 짝어짐을 가끔 다시 느끼기도 한다.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라온아띠의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슬슬 지겨워질 정도로 “다른 삶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하고 있다. 9월 에세이에 썼던 그 질문을 기억한다. 왜 나는 한국에서 그 고민을 하지 못했을까. 10월에 그 고민을 이어서 해보려 애를 썼지만 잘 모르겠다. 왜 정말 나는 다른 삶에 대한 고민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을까. 대신 나는 라온아띠에게 과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생 동안 A로 살아온 내가 이 6개월을 보낸다고 B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나를 온전히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 더 멋진 누군가가 되고 싶었던 걸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것들 투성이다.

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생각들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의 나는 그냥 가벼워지고 싶다. 그러려고 한다. 이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걸까? 잘 모르겠다. 그냥 이제 조금 가벼워지고 싶다.

특별 부록

락아의 재능을 소개합니다

락아는 매달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있어요!



필리핀 소녀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재능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모습을 팀원들은 차마 쳐다보지 못함)



새치기가 많다고 해말하게 말하는 재능



자재보다 얼굴에 집중하게 하는 재능



맛있게 먹으라는 건지 왜 너만

먹냐는 건지 모르겠는 재능



지프니가 오지 않는 답답함을

뮤지컬로 승화시키는 재능



센터 아이들보다 과하게 맛있게 먹는 재능



내가 있는 곳을 안방으로 만드는 재능



이게 내 엄지다



가르마조차 아련함을 유발하는 재능



카메라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재능



혼자가 아닌 나



시간을 포착하는 재능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재능
(금 마무리)

여러분의 10월은 안녕 하셨나요?